

사고 잦은 장수 금천마을, 안전망 강화

권익위, 국도 19호선에 교통신호기·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키로

차량과속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잇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금천마을 앞 왕복 4차로의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전길로 되어 있어 2003년 이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올해 1월 이 마을 앞 도로에서

또 다시 마을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과속차량에 숨지자 주민들은 마을기금 800만원을 들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수차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참신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속히 개선해 달라"며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이 도로의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마을 앞 도로에 횡단 보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교통 신호등은 점멸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

만 내리막 급회전 길로 인해 과속차량이 많아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전북 장수군청에서 마을주민과 장수군 부군수,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을 앞 내리막 경사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 누르고 건널 수 있도록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와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보도, 유색 미끄럼 방지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속도제한표지, 그루빙(수직 또는 수평으로 도로에 패인 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장수경찰서는 국도 19호선 마을 앞 구간에 대해 현재 시속 60km인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내리고 올해 안에 나머지 오르막 경사방향에 대해서도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금천마을 앞 국도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설치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 구간의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창가에 심는 텃밭식물 '녹색커튼'

도심 열섬 줄이는데 효과 커

전주시, 내달 초 햇빛 차단 공공건물 등에 시범 설치

전주시가 도시 열섬현상 해소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텃밭식물을 커튼처럼 활용하는 녹색커튼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는 '녹색커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열섬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녹색커튼'은 건물외벽이나 창가에 나팔꽃과 여주, 작두콩, 풍선초 등 텃밭식물을 심어 커튼처럼 늘어지게 하는 입면 녹화의 한 방법으로, 햇빛이 건물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 자연의 커튼이다.

시는 이러한 녹색커튼 사업의 확산을 위해 오는 5월 초 공공건물과 초등학교, 민간시설 등 3개소에 녹색커튼

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팔복동 전주산업단지 내 환경기술인 단체인 전주기업환경협의회는 소속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커튼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시설 1개소에도 녹색커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는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이날 전주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중앙시장 부근 등 시내 일원에서 녹색커튼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텃밭식물 씨앗 나눔 행사도 함께 됐다.

시는 향후 녹색커튼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확보를 위해 푸른전주운동본부와 함께 '1구좌 녹색커튼사업 통장' 개설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 사이버 안전 홍보

전주완산경찰서(경찰서 서장)는 5월 17일까지 건강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3대 사이버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종교장터 지겨레 사기 등을 포함한 인터넷 먹튀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3가지를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산서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주 YWCA와 업무협약을 통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경찰서 서장은 "이번 3대 사이버범죄 홍보를 통해 전주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힘찬 이륙 20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17년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참가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나랑 성관계 갖자"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일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12살)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

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에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경찰, 봄 행락철 유해수산물 근절 위한 특별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봄 행락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수산물 유해수산물 판매·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 전담반 편성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유해수산물분야 단속활동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수산식품업소 20개소 및 수산물종합센터·재래시장 등 취약요소별 전담 수사관을 편

성하고, 필요시 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원) 및 군산시청(식품위생과)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판매·유통,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과장광고 등 건강식품 판매행위, 인터넷을 통한 유해수산물 유통 등 지능화되고 광역화된 악의적 유해수산물 판매·유통행위이다. /군산=장형 기자

덕진경찰, 경목 오찬 간담회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20일 관내 외부 식당에서 박성구 덕진서장을 비롯한 지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목회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성구 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상반기 덕진서의 주요 검거사항 및 활동사례 소개, 치안상황 보고,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구 서장은 "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덕진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목 위원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가상현실 산업 이끌 전문업체 양성 전주시, VR콘텐츠 기업특강

전주시가 인공지능과 가상·증강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역 VR(가상현실)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가상·증강현실분야 기업 대표 및 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VR콘텐츠&기술 기업특강'을 실시했다.

지역특화형 스마트미디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VR기업인 '퍼티오크리에이티브'의 이승훈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VR콘텐츠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기술 활용방안과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기술개발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퍼티오크리에이티브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입주기업으로 중국 Naitam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모션캡처 시스템인 '퍼셉션 뉴런'과 다중 사용자 인식 시스템인 '프로젝트 엘리스'라는 VR장비 국내 총판을 맡고 있으며, '인피니티 플라이트(Infinity Flight)' 등 VR콘텐츠를 개발한 기업이다. 또, 지난달 개소한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에서 VR 다중 사용자인식 콘텐츠와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한 기업이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VR콘텐츠와 관련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그간의 기업 성장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진흥원은 이번 특강에 이어 스마트미디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VR/AR 콘텐츠 개발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1달 동안 진흥원 교육장에서 VR/AR 실감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